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이 많이 모인 행사장이었고, 쉬는 시간이 되자 모두가 한꺼번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별생각 없이 화장실 표지판을 따라갔다.

그런데 여자 화장실 앞에는 이미 긴 줄이 생겨 있었다. 줄은 복도 모퉁이까지 이어졌고, 사람들은 가방을 든 채 휴대전화를 보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반면 맞은편 남자 화장실 앞은 조용했다. 몇 사람이 들어갔다가 금방 나왔고, 줄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없었다.

처음에는 사람이 많은 날이라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같은 행사에 왔고, 같은 쉬는 시간을 받았고,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 왜 누군가는 금방 돌아가고, 누군가는 쉬는 시간 대부분을 화장실 앞에서 보내야 할까.

그때까지 나는 공평을 단순하게 생각했다. 남자 화장실 하나, 여자 화장실 하나. 표지판도 둘이고 공간도 나뉘어 있으니 공평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날 알게 되었다. ‘같이 있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다르다는 것을. 시설이 존재하는 것과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었다.

줄은 쉽게 사소한 일로 여겨진다.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쉬는 시간 15분 중 10분을 줄에서 보내면 누군가는 물 한 모금 마실 여유를 잃고, 누군가는 다음 순서에 늦을까 마음이 급해진다.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생리 중인 사람에게 그 기다림은 더 큰 불편이 된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다. 똑같이 나누는 것이 언제나 평등은 아니구나. 같은 개수의 문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모두에게 같은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들으면 예전에는 주로 태도나 말투를 떠올렸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 성별로 역할을 정하지 않는 것, 누군가를 성별로 판단하지 않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화장실 앞에서 내가 배운 평등은 조금 달랐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를 넘어 설계의 문제였다. 누가 더 오래 기다리는지, 누가 더 많이 불편을 감수하는지, 누가 불편을 말하기 전에 먼저 참는지 살피는 일이었다.

행사장 안내도에는 화장실이 공평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 복도 위의 시간은 공평하지 않았다. 같은 표지판 아래에서도 누군가는 바로 들어갔고, 누군가는 줄 끝에서 자기 차례를 계산했다. 그 차이는 작은 한숨, 시계를 보는 눈, “아직도 멀었네”라는 말 속에 숨어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쉽게 잊히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있으면 된 것’으로 생각했을까. 여자 화장실도 있으니 됐다. 여성 탈의실도 있으니 됐다. 여성용 사이즈도 있으니 됐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었다. 충분한가. 실제로 쓸 수 있는가. 누군가에게만 더 긴 기다림과 더 많은 불편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뒤로 나는 공간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되었다. 공연장에 가면 좌석보다 먼저 화장실 위치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체육관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한쪽 복도만 길게 뚫히는 모습이 보였다. 작은 행사장에서는 여자 화장실이 멀거나 안내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장면들이 이제는 반복되는 구조처럼 보였다.

얼마 뒤, 나는 작은 모임 행사를 준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대단한 행사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이고 정해진 시간에 쉬는 시간을 갖는 자리였다. 예전의 나였다면 의자 수, 자료집, 음향 장비만 확인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화장실 위치와 쉬는 시간도 함께 확인했다. 여자 화장실이 너무 멀지는 않은지, 안내가 잘 되어 있는지, 쉬는 시간이 한 번에 몰려 줄이 길어지지 않는지 살펴보았다.

누군가는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것이 사소한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초대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간은 사람을 환영하기도 하고, 조용히 밀어내기도 한다. 그 차이는 때로 문 하나, 표지판 하나, 쉬는 시간 5분에서 시작된다.

그날 이후 내가 생각하는 양성평등은 조금 구체적인 모습이 되었다. 양성평등은 멋진 문구를 붙이는 일만이 아니었다. 남성과 여성을 똑같은 숫자로 나누는 일만도 아니었다. 오히려 같은 조건처럼 보이는 것 안에서 누가 더 오래 기다리고, 누가 더 자주 참으며, 누가 더 불편을 설명해야 하는지 묻는 일이었다.

공평은 같은 개수를 주는 일이 아니라, 같은 만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일에 가까웠다. 평등은 같은 문을 세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 앞에 선 사람들의 시간을 함께 살피는 일이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줄을 기억한다. 그 줄은 단순히 화장실을 기다리는 줄이 아니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충분히 묻지 못한 질문처럼 보였다.

“정말 모두에게 같은 조건인가?”

나는 그 질문이 양성평등 실천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불편을 참는 사람에게 예민하다고 말하기 전에, 그 불편이 왜 반복되는지 살펴보는 것. 숫자가 같다고 공평하다고 단정하기 전에, 실제로 누가 더 기다리는지 확인하는 것.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 전에, 누구나 같은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돌아보는 것.

같은 개수였지만, 기다림은 같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묻고 싶다. 우리가 만든 공평은 정말 모두에게 같은 시간으로 도착하고 있는지.